광복절 특집

"불교계 3·1운동 선도역할 했다"

기미년 당시 전국 사찰스님들 독립투쟁 주도
일제강점전후 스님·불자중심 무력저항 가열

금년은 항일민족운동의 분수령을 이룬 3·1독립운동 85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리고 올해는 일제의 사슬로부터 풀려난지 반세기를 맞이하는 해방 5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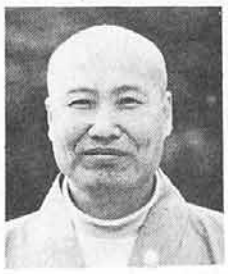
3·1독립운동 준비의 전개과정에서 불교계가 천도교·기독교와 더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 독립운동연구자들 중에는 당시 민족대표로 참여한 스님이 두 분뿐이었다는 점을 들어 불교계가 열세였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

당시 초기 운동의 확산에는 '민족대표'가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나 3·1운동의 확산과 심화에는 독립선언문의 배포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운동 전개 과정에서 민족대표 33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일제 관헌에 체포된 많은 독립시위자들이 심문을 받는 와중에 독립선언서의 배포가 촛점이 되어 피체된 사람들의 죄명도 소위 일제가 말하는 보안법과 함께 '출판법'의 위반이 이들에게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독립선언서의 배포가 3·1운동의 결정적인 주요 사안이었음을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하다.

독립선언서의 제작은 천도교에서 직영하던 보성사(普成社)에서 그해 2월20일부터 27일까지 3만5천매를 인쇄하였다.(매수는 자료에 따라 2만여매·3만매 등으로 약간씩 다르다)

독립선언서는 불교·천도교·기독교가 각 1만매씩, 그리고 나머지는 학생측이 분담 배포키로 하였다. 불교측의 배포는 만해가 책임졌는데 그는 독립선언서 1만매를 2월28일 인수하였다. 그날 밤 만해는 자신의 집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불교중앙학림 학생이자 스님인 김법린(金法麟)·김상헌(金尙憲)·백성욱(白性郁)·정병헌(鄭秉憲)·오택언(吳澤彦)·신상완(申尙玩)·김규현(金圭鉉)·김봉신(金奉信)·김대용(金大鎔)등과 중앙학교의 박민오(朴玟悟)등 10여명에게 그간의 경위와 앞으로의 각오를 얘기하고 독립선언서를 건네주며 서울 시내와 각 지방에 배포하도록 당부하였다.



◇일제봉스님 <이천 지족암>

이들은 3월1일 서울 일원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또 많은 불교도를 동원하여 파고다공원의 독립선언식과 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출신 사찰을 중심으로 하여 김법린과 김상헌은 범어사를, 오택언은 통도사를, 김봉신은 해인사를, 김대용은 통화사를, 정병헌은 화엄사를 중심으로 독립투쟁을 실천하기로 분담하고 각기 독립선언서를 휴대하여 각 지방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이때 지방불교계의 3·1운동에서 특기할 점은 독립선언서를 더욱 많이 다시 제작하여 배포했다는 사실이다. 즉 해인사에서 3천매를, 범어사에서 1천매를 자체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또 양주 봉선사에서는 김성숙(金星淑)이 동료 스님들과 함께 2백여매의 독립문서를 작성하여 인근 촌락과 시장에 살포하였다.

그리고 3·1운동의 지역별 궐기면에서 보더라도 각 지방에 파견된 중앙학림의 학생스님들을 위시하여 그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스님들이 참여하였다. 동참한 주요 사찰로는 경남의 해인사·범어사·통도사·표충사, 경북의 통화사·청암사, 충남의 마곡사와 부여·공주 소재의 사찰들, 충북 법주사, 전남의 화엄사·대흥사, 경기도 봉선사, 황해도 신광사, 평남 평양 소재의 사찰들 및 함남의 석왕사등 전국에 걸쳐 많은 대소 사찰의 스님들이 3·1독립운동을 적극 주도하고 참여하였다.

이상의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3·1운동 당시 불교계는 ①독립선언서의 배포 부분과 ②전국적인 각 지역별 만세시위의 주도 등의 면에서 천도교·기독교와 더불어 주요한 핵심 3대 세력의 하나로서 3분의 1이상 기여하였음이 입증·평가된다. 그런데 혹자들중 '민족대표'가 두 분뿐이었다는 사실만으로 3·1운동시 불교계가 열세였다거나 그 기여도를 폄하하는 시각은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불교계의 항일투쟁은 3·1운동을 분수령으로 삼아 그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 살펴본다면 대략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의병항쟁기(1905~1909)에는 양주를 중심으로 승려출신의 의병장 박순근(朴順根, 1872~?)이 무장투쟁을 하였고, 경봉 김재홍(鏡峰 金在弘, 1885~1969, 건봉사 재적승)은 1908년 전북 무주에서 일본군과 교전하는 등 항일투쟁을 하다가 승려가 되었다. 응송 박영희(應松 朴暎熙, 1892~1980)는 1908년 소년 의병으로 전남 완도·해남등지에서 활동하다가 승려가 되었고, 출가 후에는 3·1운동과 만주의 항일무장투쟁에 참여하였다.

한일병합 후에는 우리 나라 최초로 불교사전을 편찬한 운허 용하(耘虛 龍夏, 1892~1980)스님이 대동청년단과 만주에서 동포 자녀들의 교육과 무장투쟁에 헌신하였다.

3·1운동이 일어나기 바로 전해인 1918년 10월에는 제주도 법정사(法井寺)의 김연일(金蓮日)·방동화(方東華)등 10여명의 스님들이 불교신도와 주민 4백여명을 동원하여 격렬한 무장항쟁을 벌였다. 이 사건은 3·1운동 6개월전에 불교계 스님들의 주도로 이루어진 주목할만한 항일투쟁이었다.

3·1운동 후에는 항쟁에 참여했던 김법린·백성욱·이종욱 등의 많은 스님들이 한성임시정부와 상해임정의 독립투쟁에 투신하였고, 정남용·송세호스님은 대동단과 상해임정의 국내 연통부에, 그외 고 백초월스님은 비타협적 항일투쟁을 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감옥에서 옥사하였다.

또한 3·1운동에 의해 민족적 자주의식에 눈뜬 청년승려들은 조선불교청년회와 그 별동대인 불교유신회를 결성하여 사찰령 철폐운동·주체적인 총무원 결성·친일 주지들의 전횡 방지·비밀 항일 단체인 만당(卍黨)의 조직 등으로 이어져 1920~30년대의 항일투쟁으로 연계되었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사에서 여타 분야도 그러하였지만 불교계에 있어서도 3·1운동은 계속적인 항일독립투쟁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일제하 불교 법난사 <1877~1945>

▲1877. 일본승려들 조선 침투.
▲1895. 일련종 승려 사노(佐野前勵)의 건의에 의해 조선승려 도성출입금지 해제.
▲1906.11. 통감부령 제45호로 「종교의 선포에 관한 규칙」 반포.
▲1910.6. 원종(圓宗)의 종정 이회광, 일본 조동종과 연합맹약.
▲1911.6.3. 사찰령 반포.
▲1912.1.19. 묘향산 보현사에서 일본승려 길천(吉川大航)을 주지후보로 선정, 수속서류를 평북 도지사에게 제출했다가 이를 퇴각당한 후, 다시 배영해스님을 주지로 선정해 승인받음. △6. 총독부가 사찰령을 반포, 원종과 임제종 간판을 철거함.
▲1915. 강대련, 30본산 연합사무소의 위원장이 되면서 조선불교계 종권 장악.
▲1917.6.11. 본말사법(本末寺法) 제47조를 개정해 천장절축일(天長節祝日), 일본 명치천황의 강탄회(降誕會), 등극회, 등하회(登遐會) 등을 삽입.
▲1913. 충남 대본산 마곡사 관내 사찰들은 '마곡사 본말사법'을 본사로 환송하고 복종하지 않음. △3.30. 30본산주지회의, 절안에서의 처자 동거와 부녀자 숙박 금지.
▲1919.11. 강대련, 일제 각급기관에 친일·비불교적인 〈조선불교기관 확장의결서〉 제출.
▲1920. 3대 총독 사이또, '일본인과 조선인의 제휴로 불교적 사회운동을 일으키자'는 내용의 〈종교적 사회운동〉 작성.
▲1921. 한용운과 북암, 김상호, 정맹일, 강신창 등의 스님들이 조선불교유신회를 결성, 일제의 사찰령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섬.
▲1922.1.9. 조선불교유신회, 조선불교총회에서 30본산연합제규를 폐지하고 총무원 설립. △유신회를 반대하는 친일본사 주지들이 용주사에서 회의를 열고 별도의 총무원을 설립. △3.24. 조선불교유신회, 각황사에서 제1회 총회 개최. △3.26. 각황사에서 '주지성토 강연회' 개최. △4.21. 불교유신회 회원 2천2백명이 연명으로 날인, 사찰령 폐지와 통일기관 설치를 요구하는 건백서를 총독에게 제출. △교무원측 친일본사 주지들, 중앙학림 강제 폐교.
▲1924.1.6. 불교유신회 사찰령 폐지 요구. △총무원, 친일성향의 중앙교무원에 통합당함.
▲1925. 남산에 일본신사의 총본산격인 조선신궁 완공.
▲1926.3~9. 백용성스님, 총독부와 일본 내무성에 조선승려의 '대처·식육금지 건백서' 발송. △사법(寺法)중 주지의 '비구계 구족' 조항을 삭제.
▲1930.5. 어용단체인 '오대산 적멸보궁찬양회(회장 박영효)' 결성.
▲1932.1. 한용운스님, 〈불교〉 제91호에 〈사법개정에 대하여〉란 글을 통해 사찰령과 사법에 대해 비판.
▲1937.7.26. 종교교화단체연합회가 주최한 시국강연회에서 불교측 대표로 권상로가 친일강연을 함. △8.5. 개운사에서 중국을 침략한 일본군의 승리를 기원하는 '무운장구 기원법요' 거행. △8.6. 이종욱의 사회로, 권상로 대은스님 김태흡 등이 친일강연회 개최. △8.8~9.30. 이종욱, 임석진, 황금봉 등 중국 화북지역으로 출동하는 일본군을 위한 환송행사를 54일동안 23회나 치룸. 중일전쟁기간에 국방헌금과 위문금을 모금함.
▲1938.4. 교무원, 일제의 국가총동원법에 발맞춰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에 발기인 단체로 참여.
▲1940.1.1. 〈불교시보〉에 일본왕 부부사진과 함께 '홍아성업건설의 신춘천은 사해팔광에 보점(普霑)'이란 친일기사 게재. △김삼도(金三道), 우영(宇英)이란 필명으로 〈신불교〉 제20집에 '황기 260년을 맞이하여'란 친일 권두언을 기고. △권상로, 친일시사문 「시국하 조선불교도의 임무」를 〈신불교〉 제25집에 게재. △11.10. 31본사 주지중 각 도에서 대표자를 추천, 일본 황기 2천6백년 기념식에 참석시킴.
▲1941. 이종욱 등의 친일승려들, 총독부의 협조로 어용화된 조선불교 조계종 총본산 만듦.
▲1942.12. 금강산 유점사 함북 포교당인 약수사 신도와 스님이 중일전쟁 전몰장병위령제 및 대동아전쟁 완수 등(同) 육해공군 무운장구 및 전사충령위령법회를 거행 후 범종 1구를 국방기자재로 헌병대에 헌납함. △5.16. 일제 관료와 조계종 종무총장의 독촉을 받은 조선사찰들이 쇠붙이나 유기, 청동으로 제작된 불교용품 대다수를 무기용 국방자재로 헌납.
▲1945.11.2. 미군정, 구법령인 사찰령의 존속을 규정.

※94년도 승가 誌에 실린 해봉스님 논문에서 발췌

연구 논문 3편 발표
일제하 불교관련
김광식 씨

청년운동이 총본산 건립 기반

"자료부족·기존연구미약·학계편향시각 극복할터"

일제시대의 불교와 관련한 논문을 왕성하게 발표하고 있는 김광식씨(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원).

그는 최근 '일제하 선학원의 운영과 성격'(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8집 별쇄본)과 '조선불교청년회의 사적고찰'(한국불교학 제19집)을 발표한데 이어 곧 발간될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10집에도 '일제하 불교계의 총본산 건립운동과 조계종'이란 논문을 발표한다. 김씨는 논문 '일제하 선학원의 · · · '를 통해 선학원의 창설과정과 침체, 재건, 변질등을 다뤄 주목받았다.(본지 15호기사참조)

또한 '조선불교청년회의 사적고찰'은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미약한 토대위에 발표돼 일제하 불교청년운동의 전모를 밝히려는 학문적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을 들었다. 김씨는 이 논문에서 조선불교청년회의 창립활동,침체와 재기등을 다뤘다.이같은 연구의 접근은 철저히 역사적 안목에서 이뤄졌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조선불교청년회가 1920년 창립때부터 31년까지 보인 일제의 사찰정책을 극복하고 불교의 혁신을 기하기위한 노력을 경주한 것은 한국 근대 불교사상에서 그 의의가 적지않다"는 김씨의 견해는 "그 운동의 전신은 조선불교선교양종승려대회와 총본산 건설운동의 기반이 되었던 것"으로 귀추되고 있다. 이 같은 김씨의 연구는 앞으로 일제하의 청년불교운동에 대한 연구범위의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일제하 불교계의 총본산 건설운동과 조계종'은 1930년대 초반 질곡의 역사속에 불교계가 처했던 상황에 천착, 총본산 운동의 전개 과정과 일제의 획책과정을 밝혀낸 논문. 김씨는 이 논문을 통해 1929년 조선불교청년회 출신 청년승려들의 발의로 시작된 승려대회에서는 불교계의 대표기관인 종회와 교무원을 탄생시키고 종헌을 완성시킨 일련의 과정과정을 세밀히 분석했다. 이어 총본산 건설운동의 본격화로 1937년 2월말 이후 총본산의 사격(寺格)을 위해 태고사를 정한 과정까지를 밝힌 것이 논문의 요지이다.

일제하의 불교에 대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김씨는 몇가지 넘어야할 벽을 만났다고 말했다. "우선 친일·항일이라는 구조속에서만 당시의 불교를 보려는 시각을 벗어나 역사적 상황속에서 전시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새삼느끼게 됐습니다. 또한 관련자료의 빈약함과 숨기려는 역사의식도 이 분야연구에 김을 빼는 그간의 사정이었습니다"

개항기와 일제하 그리고 광복직후와 정화운동, 현대의 법난등으로 이어지는 연속선상에서 불교가 보다 객관적으로 연구돼야 한다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다.

그는 올해에도 3~4편의 논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임연태 기자〉

불교의 대중화
불교의 대중화
불교의 대중화
불교의 대중화
불교의 대중화
불교의 대중화
불교의 대중화

대원 불교대학

• 2년제 야간, 전문과정
• 교계 최고의 강사진
• 20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 교육기관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1. 모집학과: 불교학과 { 출강과정 ○○명 / 통신과정 ○○명
2. 지원자격: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자
3. 전형방법: 서류전형후 개별통보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95년 2월말일까지
5. 교 과 목: 주 5일 수업

1학년	1학기	불교학개론	선종사상	한국불교사	인도불교사	불전개설
	2학기	불교입문	화엄사상	밀교사상	법화사상	정토사상
2학년	1학기	의식이론	반야사상	포교방법론	불교미술	유식철학
	2학기	의식실수	불교상담학	불교복지론	종교사및종교학	원전강독 I

6. 특기사항: 졸업후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

대원불교대학 | 140-190 서울 용산구 후암동 358-17
전화 : 776-7156, 773-9171, 754-1613 팩스 : 756-7258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